

이 보도 자료는 배부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성북구 보도자료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과장	최태규	2241-3122
담당팀장	노상훈	2241-2801
담당자	이상재	2241-2802
■언론보도팀 2241-2112, *****		
■총 2쪽 ■사진 1매 ■스티커이미지 0매		

- 서울시 사대문(四大門) 밖 최초 -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지정

한옥신축 및 수선 시 최대 1억원 보조·용자

앞으로 성북구 성북동 선잠단지(성북동 62번지 일대) 및 앵두마을(성북동1가 105번지 일대)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는 **최고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4.12.26. 이 두 곳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한옥신축 시 최대 8000만원을 보조하고 2000만원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전면 개보수의 경우 최대 6000만원 보조, 4000만원 용자, 지붕 등 부분 개보수는 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그동안 서울시 한옥은 북촌 및 인사동 등 종로구 한옥밀집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아무리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이라도 밀집지역 내에 소재해 있지 않으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지정은 '서울 한옥선언(2008년)'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대문 안에서만 지정되었던 한옥밀집지역을 사대문 밖으로 확대 지정한 것의 최초 지역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성북구는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2013.12.31.)'을 통해 성북구내 한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한옥밀집지역을 구체화한 후 '성북동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성북동 선잠단지 및 앵두마을 일대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북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선잠단지와 앵두마을 일대의 건축주들로부터 한옥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으로, '서울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가능 한도액을 결정하게 된다.

향후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내에 지원금을 받은 건축주는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멸실하지 못하며, 지원금을 받을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성북구는 한옥보전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별한옥이라도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한옥보전지원기금도 조성했다. 또한 한옥보전에 대한 저변의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옥아카데미는 주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 위치도

